

지역 매아리

정읍농기센터, 식량작물분야 시범사업 종합평가회 가져

정읍시농업기술센터(소장 문채권)는 6일에 농업기술센터 제1강의실에서 식량작물 시범사업에 참여한 농업인과 벼농사연구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평가회를 실시했다.

정읍시는 올해 식량작물분야 시범사업 6개 사업에 8억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했다. 벼 생산조정과 조사료 지급률을 높이기 위해 전년에 이어 총체시료용벼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쌀 고급화 추진을 위해 밥쌀용 최고품질 품종 재배단지 조성사업을 실시했다.

또한 콩 신품종과 기계화 기술의 신속 확산 및 콩 부가가치 향상을 위하여 생산·가공·유통을 연계한 상품화를 위한 국산콩 생산성 격차(yield gap) 해소 특산단지 육성사업을 추진했고 이밖에도 고구마 생산 일관기계화 시범사업, 보그종 생산 재배단지 조성사업 등을 추진했다. 이날 평가회에서는 식량작물 시범사업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한 사업별 장·단점을 비교·분석하고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신품종 특성과 재배기술 공유하는 자리가 됐다.

또한 이날 평가회에서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품종선택과 품종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시비량과 병해충 방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 되었으며, 내년부터 모든 농작물에 적용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제도(PMS)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향교 기로연 개최

정읍향교(전교 성하문)는 6일 정읍선비문화관에서 향교 유림과 지역 어르신 등 100여명을 모시고 경로효친 사상 고취를 위한 기로연(耆老宴) 행사를 개최했다.

기로연은 조선시대 70세 이상의 원로 문신관료들을 위로하고 예우하기 위해 조정에서 봄·가을에 정기적으로 베푼 잔치로, 인의예지로 대표되는 유교문화와 경로효친 사상을 계승발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유진섭 정읍시장을 비롯하여 최낙산 정읍시장, 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 장성열 교육장 등 지역 기관장들이 참석하여 행사를 축하하고 어르신들을 위로했다.

개회식을 시작으로 장수상 시상과 다채로운 축하공연이 진행됐다. 장수상 시상은 남녀 최고령자인 한천석(97), 김갑섭(94, 여) 두 어르신이 수상했다. 시상식에 이어 고전무용을 비롯한 사물놀이, 시조창, 민요, 풍류 등의 공연이 이어져 참석한 어르신들에게 맛과 흥을 전했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군이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을 마무리하고 6일 청호수마을 농촌관광 거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농촌관광 활성화 한 단계 도약”

부안군, 청호수마을 거점센터 개소식 개최 축구장·농구장·세미나실·식당 등 겸비

부안군은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을 마무리하고 6일 청호수마을 농촌관광 거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부안군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은 지난 2015년 삼현마을을 중심으로 하서면 청호리 7개 마을 242개 가구 주민들의 풍의를 얻어 사업을 시작했으며 도시민들이 농촌 체험을 즐기면서 머물러 갈 수 있도록 조성했다.

청호수마을 농촌관광 거점센터는 120여명이 체합과 숙박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조성했으며 축구장과 족구장, 농구장, 세미나실, 식당이 모두 겸비돼 있어 농촌체험뿐만 아니라 단체모임시 세미나와 운동시설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청호수마을 농촌관광 거점센터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스포츠시설과 식당, 숙박시설이 한곳에 모여 있어 축구부를 육성하는 학교에서 정지훈련장으로 문의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17일 농촌관광·휴양마을로 지정을 받아서 학교의 교육과 정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청호수마을 농촌관광 거점센터를 개소로 부안군 농촌관광 활성화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됐다”며 “마을주민 11명이 체험지도사(농촌체험, 숲해설, 한식조리, 한의학 등) 자격증을 획득하고 지난 10월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인센티브 사업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아 1억 2500만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 주민들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청호수마을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편의시설을 다시 한번 정비해 전국 최고 수준의 농촌관광 거점마을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한반도 첫수도 고창갯벌 토크콘서트’

수산물 브랜드 발굴 상품 시연회 등 브랜드 개발 가능성 모색

고창군(군수 유기상)이 내일 랍사르갯벌센터 개관 기념 ‘한반도 첫 수도 고창갯벌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랍사르갯벌센터(심원면 애항갯벌로 591-34)에서 열리는 토크콘서트는 지난 2016년부터 시범운영 중인 랍사르갯벌센터의 정식 개관을 기념하며 마련됐다.

토크콘서트는 세계적인 가치를 인정받은 고창갯벌에서 생산되는 지주식 김, 바지락, 전일염, 풍천장어 등의 수산물 브랜드를 발굴하여 지역 수산물의 경쟁력을 갖추고 고창 어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

이날 우석대학교 역사교육과 조법종 교수의 기조강연 ‘해양의 관점에서 본 한반도 첫수도 고창’을 시작으로, 랍사르갯벌센터 임시운영 성과 보고, 고창 수산물 브랜드 발굴 상품 제작 시연회 ‘Ocean to Table’, 주민들과 함께하는 ‘고창갯벌 브랜드 만들기 토크콘서트(좌장 제중길 전 안산시장)로 진행된다.

군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고창의 갯벌이 세계적으로 가치를 높이 인정받고 있는 만큼 이 우수성을 활용하여 지리·역사·문화적 가치를 접목시킨 새로운 브랜드를 만든다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며 “청정 갯벌에서 생산된 깨끗하고 안전한 수산물에 랍사르습지,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유산 등의 자원을 연계하여 고창만의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다양한 성공사례와 의견을 나누게 될 이번 토크 콘서트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고창군 홈페이지(http://www.go-chang.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사회보장급여 자격확인조사 실시

정읍시(시장 유진섭)에서는 10월부터 시작하여 12월까지 마무리하는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에서는 최근 갱신된 공적 자료를 토대로 현재 보호받고 있는 대상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액을 재검토하여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정수급자는 색출하여 퇴출하고 생계곤란자에 대해 더욱 더 적극적인 보호를 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달 2일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정읍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격 자격변동이 있는 3,555명을 정읍시에 통보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 한부모가정 지원 사업 등 총11개 사업에 대하여 본인의 소득과 재산 변동 및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변동에 따른 급여감소, 증가, 중지 등에 대한 통보이다.

이에 시는 정확한 자격확인조사를 통해 역울한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원 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에게 10월

중순부터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상담과 가정방문을 병행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자격변동으로 지원이 감소·중지되는 가구는 긴급복지 지원을 연계하여 최소 3개월간 적용할 수 있는 생계비를 지원 하고 있으며, 의료비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가구는 차상위본인부담 경감을 연계하고 민간지원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도 연계하는 등 다각도로 구제방안을 검토하면서 추진 중이다.

한편, 9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으로 생계급여가 감소되는 대상자가 발생함에 따른 문의도 잇달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도 기초연금 인상부분에 대하여 저소득층 보호방안으로 검토하고 있고, 기초생활보장에서도 점차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 및 폐지하는 추세여서 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감소된 생계급여를 받는 대상자들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이 지난 5일 고창읍사무소 대회의실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고창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박차

선도지역 지정 위한 공청회 개최 결과·향후계획 등 의견 나뉨

고창군(군수 유기상)이 지난 5일 고창읍사무소 대회의실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주거지원형)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라 올 8월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읍내리)의 선도지역 지정을 위해 주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에서는 그동안의 사업추진 경과와 향후계획, 사업계획 구상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관계 전문가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창읍 읍내리 일원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주거지원형 도시재생 사업으로 2019년부터 4년간 약 14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이를 통해 지역자원인 고창읍성과 연계하여 헬스건강센터, 동문역사박물관, 골목형 전통시장 정비사업, 노후주거정비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군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국토교통부에 선도지역 지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이후 활성화계획 수립과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 평가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한 후 내년 상반기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유기상 군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시작 단계부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아이디어 공유에 달려있다”며, “지역사회가 주도하고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사업으로 추진하여 품격 있는 역사문화관광도시이자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한반도 첫 수도 고창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 Wine featuring Mulberry Wine and various gift sets. Includes images of wine bottles, gift boxes, and a cartoon bear mascot. Text describes the quality and availability of the products.